

우리나라 방직공장화재중 최근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이 지난 83년 11월 충남 대덕군 신탄진에서 일어난 풍한방직(주) 화재이다. 피해액 규모가 자그만치 170억원으로 지급보험금이 약113억이나 되는 엄청난 화재였다.

화재 어떻게 예방 할까?

조태업
홍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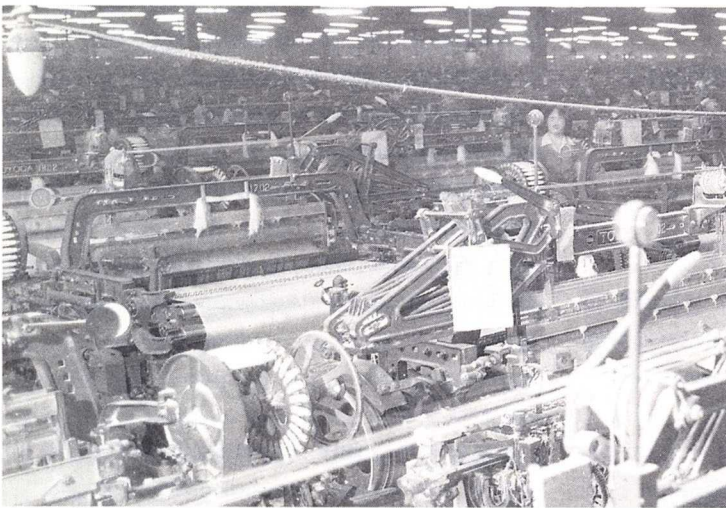
방직·방직공장은 생산공정의 특성상 화재위험도가 높다. 일관 공정으로 이어져있어 방화구획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품질관리를 위해 온·습도를 일정하게 맞춰야 하고 연료나 제품 자체가 특수가연물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정이어서 더욱 위험하다. 분진이 일정량 이상 공기중에 모이면 이로인해 급격히 화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국내보험업계를 휘청거리게 했던 윤성방직화재도 다름아닌 전등위에 쌓인 분진 때문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공장이전과 화재로 인한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제2창업운동'을 '도전과 극복'이란 구호아래 활발히 전개해 타월업계로는 처음으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승리타올을 찾았다.

공장 개요

승리타올은 지난 78년 현대전직할시 서구 용문동 224-13번지에 자리 잡고 타월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왔다. 이후 사세확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건물을 증축해왔고 이번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건물부분은 한식목조 2층 조직조 건물로 목조트러스위 소골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었다.

- 본 공장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78. 3 현위치에 회사설립
 - 1983. 12 진흥공단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 지정
 - 1984. 5 체코산 자동직기 20대 도입
 - 1984.12 일본산 자동직기 12대 도입



- 1986. 11 수출 100만불탑 수상
- 1987. 5 량방타올 생산납품 개시
- 1988. 5 지방시와 기술제휴
- 1988. 9 피에르 발만과 기술제휴
- 1989. 8 금산 농공공단 공장 완공

화재발생 및 경위

89년 1월 15일, 사고가 일어난 날은 일요일로 전날 오후 7시경에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있었다. 휴일이 라 공장내에는 평소 기숙사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지내왔던 사장님 모친과 종업원 4~5명이 있었고 공장 근처에 살고있던 종업원 박종환씨(운전기사)가 틈틈이 공장을 순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다행히 부근에 인접해있던 삼정식품의 종업원 강정훈씨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삼정식품공장을 살펴보던 중 승리타올공장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승리타올 공장내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운전기사 박종환씨와 공장에 남아있던 종업원들은 공장2층 제품창고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어 다른 종업원들과 소방서에 연락을 했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동안 창고앞 통로부분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급히 대피시켰다. 마침 소방차 10대가 출동해 오후 8시30분경 1차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적치되어 있던 타월이 완전 진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방차 2대가 남아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확인진화작업을 벌였다.

진압후 관계당국의 확인조사결과 전기합선으로 추정되었다.

피해상황 및 손해보상

공장2층에 쌓여있던 타월 등의 동산이 장시간에 걸쳐 소실되면서 심한 화열이 발생, 이로 인해 지붕은 목조트러스중 굵은 부재만 약간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2층 블록벽체도 심한 화열로 인해 부분적인 균열 파손이 발생했다. 결국 2층벽체는 전면 해체해 재시공을 해야할 상태였고 샤프링과 구로링 등 근처에 있었던 기기도 동산이 소실되면서 발생한 화열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편, 승리타올은 화재발생 한달전인 88년 12월 4일자로 협회에 건물 및 기계시설을 보험목적으로 해 보험 가입금액 47억1천여만원의 신체손해 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보험기간 1년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동산에 대해선 H화재해상보험(주)에 장기화재보험으로 가입한 상태였다.

협회는 화재발생신고를 받은 후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소손된 기계의 재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고 손해사정 회사에 손해액 사정을 위촉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2월 23일에는 최종 피해액이 확정되어 총2천8백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공장내부일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김 일 부장은『막상 화재를 당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되니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비례보상으로 전체복구비 모두를 충당할 수는 없었으나 앞으로 보험가액을 낮추거나 보험료에 대해 인색해서는 안되겠다』고 했다.

복구후 상황

공장건물이 노후하고 방재설비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유사시 작업중인 종업원의 민첩한 소방능력만이 화재 발생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곳곳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방치되었던 소방시설의 보수, 소화기 사용법 및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을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지정된 장소외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현장의 정리정돈부터 철저히 해 화재예방의 기초를 튼튼히 해가고 있다.

면방공장의 공정이 화재발생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을 경우 확산속도도 빠르다는 특성을 감안해 농공공단으로 이전한 신공장에는 방화시설과 보험가입을 재검토해 부족한 점을 즉시 보완해갈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쾌적한 작업환경유지를 통해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직원복지향상의 일환으로 시원주택건설, 통근버스운행, 작업환경개선 등을 적극 펼쳐가고 있다.

우리가 불을 이용해 생활을 해가는 한 화재위험과 영원히 결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번 겪은 일을 교훈삼아 철저히 예방해간다면 이겨내지 못할 화재는 없을 것이다. 물론 경험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지만. ☹